



“이거, 신문에 난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또 핑크야! 빨리 다른 대상 물색해. 시간 없어. 서둘러!”

지난 19일 오후 6시 KBS 본관 5층 ‘라디오 정보센터’. 대개의 사람들이 일을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할 무렵 이곳엔 도리어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소상공 책임PD와 김남광 작가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가 싶더니 전화기에서 불이 난다.

정통 시사 프로그램인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엔 매일 6~10명의 출연자가 나온다. 출연 대상자 모두가 시사성 있는 인물인 만큼 대개 하루 전이나 당일 섭외가 이뤄지게 마련이다. 방송사고를 막기 위해 제작진은 방송이 끝나기까지 마음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8년을 달려왔다.

다음날 낮 12시 4층 제1라디오 스튜디오. 정오 뉴스가 시작되고 나서야 진행자 박찬숙 씨는 펜을 집어든다. 20분 후 시작할 이 프로의 오프닝 멘트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감시간이 닥쳐야 속도가 붙는다는 그녀의 익숙한 방식. 보통사람들 같으면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비어갈 시간, 그녀는 여유 있게 펜을 놀린다.

역사를 다시 쓴다... 정통 시사프로의 원조

거침없이 쏟아지는 질문, 통쾌한 비평과 풍자...
 박제되지 않은 생생함이 장기간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가 지난 7월 25일로 만 여덟 번째 생일을 맞았다. 방송 횟수만 2천 500회를 넘었고, 출연자만 어림잡아 2만여 명이다.

그렇다고 이 프로가 ‘양’을 추구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이곳에 명함을 내밀려면 뉴스의 중심에서 있어야 한다. 즉, 현재 어느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책을 친절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그러곤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설화법을 통해 그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고자 합니다.”(소상운 책임PD)

대개 하루 전 출연자를 결정하지만 아침에 섭외하는 비율도 꽤 높다고 한다. 제작진은 조간 신문들을 일제히 훑어 밤 사이 뉴스 속의 인물로 떠오른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섭외에 들어간다. 그동안 쌓아둔 인맥을 활용한 박찬숙 씨의 섭외능력이 발휘되는 것도 이때다.

때론 피말리는 배수진을 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건 감이다.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밀어붙인다.

지금까지 기록은 1시 12분 방송에서, 2분 전인 1시 10분 극적으로 섭외가 된 경우다. 올해 초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의 인터뷰도 방송 5분 전에 겨우 전화 연결이 됐다. 초침이 돌아갈 때 제작진이 느꼈을 긴장과 고통을 생각해보라.

8년 전에 비하면 출연자 섭외는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다. 이 프로가 영향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쉽게 출연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몽준·박근혜 의원 등 최근 행보를 주목 받고 있는 정치인들도 수차례 출연했다. 하지만 소위 언론을 기피하는 손님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그땐 뚝심으로 그 벽을 넘는다.

지난 5월 31일 월드컵 개막 당일.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에는 깜짝손님이 출연했다.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다.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인터뷰를 사양하겠다”고 밝혀온 히딩크이기에 이날 방송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히딩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16강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나는 모든 팀을 다 이기고 싶다”는—마치 본선에서 포효하면서 말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를 연상시키는—강력한 승부욕도 보였다.

**함께하는 | 라디오 온 에어
 재 미 |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1라디오 월~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청취자의 시각에서 찾아내는 사회적 이슈. 논의의 쟁점으로 깊숙히 파고드는 예리한. 시사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궁금증 해결사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정통 시사프로의 원조인 이 프로그램의 원동력은 뭘까. 생생한 정보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를 되짚어본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치열한 근성은 때론 '특종' 이란 선물을 선사한다.

지난 4월 김해 중국 민항기 추락 당시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는 한창 방송중이었다.

이 프로는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던 아파트 건축소장의 전화 연결을 통해
아비규환의 참상을 가장 먼저 리얼하게 전달했다. 다른 언론사는 한창 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짧은 만남을 위해 제작진은 한 달을 투자해야 했다. 매일 아침 선수단 숙소에 전화를 거는 것이 일이었다. 월드컵 개막일이 다가왔을 땐 이미 히딩크쪽에서 손을 든 뒤였다.

이에 반해 정치인은 아무래도 쉬운 편이다. 그러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예외에 속한다. 이 총재는 방송가에서 인터뷰하기 힘든 인물로 통한다. 하지만 그 역시 올해 초 이 프로의 출연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치열한 근성은 때론 '특종' 이란 선물을 선사한다.

지난 4월 김해 중국 민항기 추락 당시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는 한창 방송중이었다. 이 프로는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던 아파트 건축소장의 전화 연결을 통해 아비규환의 참상을 가장 먼저 리얼하게 전달했다. 다른 언론사는 한창 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대통령도 출연한다... 예외없는 출연섭외

이 프로의 축수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제작진의 금과옥조다.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면 부르는 것이다.

지난 1월 20일에는 대통령 부인 이회창 여사가 출연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한 40년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 여사는 가장 보람 있는 일로 평양 방문을 꼽았으며,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논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압권은 대통령 인터뷰다. 국정 전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통령 인터뷰를 추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는 등 초유의 인터뷰가 성사될 뻔했으나 대통령의 감기 때문에 일단 연기됐다.

8년의 세월은 달력만 바닥에 쌓이게 한 것이 아니다.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도록 했다.

최근 강남 부동산 과열 대책의 일환으로 특목고를 신설한다는 발언이 있자 "교육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볼모인가" 하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 진원지가 된 발언이 이 프로에서 이뤄졌다. 그녀가 하면 올해 초 진남 부총리가 출연해 "하이닉스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말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반대로 방송 도중 20포인트 이상 주가가 상승한 적도 있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가 시사 현안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열린 마당'은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

자들이 많이 듣는다고 한다. 이익단체의 전화 쇄도 등 위험성도 있지만 이곳을 통해 주요 쟁점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살아 있는 카리스마... 명진행자 박찬숙

"한 프로를 오래 진행하다 보면 아집을 부리거나 제작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찬숙 씨의 자세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죠."

제작진의 진행자 박 씨에 대한 평가다.

사실 박 씨의 순발력은 자타가 공인한다. 출연자 대부분은 섭외과정에서 "약속한 질문만 해달라"고 부탁해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방송 대본이 따로 없는 박 씨는 방송 내내 빠곡이 메모하며 그때그때 궁금증을 푼다.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질문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출연하기 꺼리는' 프로로 소문나 있다.

그녀는 거침없다. 치열한 생명력이 넘쳐난다. 마치 펄떡거리는 생선을 낚아 올리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그녀의 독설을 사시(斜視)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때론 일갈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녀는 솔직하게 전달한다.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정책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공격할 정도. 1998년 정기국회 공전 때 3당 원내총무를 스튜디오로 불러내 개원 합의를 이끈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그 순발력 뒤엔 엄청난 양의 자료 조사가 있다. 빨라야 하루 전에 아이템이 정해지기 마련인 만큼 그녀는 그동안 만났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핵심을 잡는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관련서적을 탐독한다. 필요하다 싶으면 현장으로 나선다. 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15명을 만나기 위해 전국 순회방송도 했다.

그녀는 1976년 <9시 뉴스> 사상 첫 여성 앵커로 발탁됐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후로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편견을 딛고 중량감 있는 시사프로 진행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글_이상복(중앙일보 기자), 사진_이민규



청취자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스튜디오로 불러낸다. 섭외를 위한 전화통화에 여념없는 박찬숙 씨.



월 요일 오후 3시, 대부분의 극단들이 공연을 쉬는 요일이라 그런지 대학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한반도 유머 총집합>을 연출하는 김응래 PD를 찾아 창조 소극장 계단을 내려간다. 공연이 한 시간쯤 남았는데 계단과 대기실에는 출연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로커 분장을 한 한 여성출연자가 연신 흘러내리는 가발 때문에 어쩔 줄 모른다. “이따 나올 때는 가발 안 벗겨지도록 조심해.” “그리고 우는 연기가 너무 약해. 좀더 강하게 한번 해봐.” 무대 앞에서 아마추어 연기자들의 행동과 대사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김 PD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난다.

<한반도 유머 총집합>은 문화전문 위성방송 KBS 코리아가 내세우는 간판 개그 프로그램. 초반에는 심형래, 김형곤, 장미화 등 중견급 이상의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콩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30회를 넘어가면서 ‘지상파 방송과 차별되는 젊은 분위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즉시 아이디어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1인 MC 체제에 KBS 16, 17기 신인 개그맨들과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꾸미는 공연 형식의 프로그램. 한 달 전쯤인 34회부터 형식의 변화와 함께 제작진은 아예 무대를 대학로로 옮겨 실제 소극장에서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파격을 시도했다. ‘문화의 현장에서 직접 관객들을 만나자’는 취지였다.

생생한 공간, 땀 흘리는 사람, 그리고 진짜 웃음

녹화 30분 전, 아직 리허설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관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하더니 20분도 안 돼 300여 석의 소극장 좌석이 가득 메워진다. 친구 2명과 함께 앞자리를 차지한 대학생 지혜롬 씨(21)는 “방학이라 대학로에 놀러왔다가 공연 보라는 말 듣고 들어왔다”고 했다. 아직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들어온 관객들이 대부분이지만 방송을 보고 2,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관객들도 꽤 된다.

녹화시작에 앞서 ‘바람잡이’ 개그맨 이상철 씨가 등장했다.

“저희 프로는 다른 녹화처럼 웃으라고 손짓 안 합니다. 대신 항상 자발적으로 웃어주셔야 합니다. 오픈 마인드가 저희 공연을 보는 관객들의 첫번째 의무거든요.”

소극장에서 여는 공연인 만큼 관객들의 자연스런 웃음을 중시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원칙. 출연자들이 등장할 때 박수와 환호성을 해달라고 손짓하는 것 정도가 ‘사전교육’의 전부다.



문화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웃음





가식 없는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무대와 관람석간의 한호흡. <한반도 유머 총집합>은 이 세 박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대학로 문화이벤트다.

녹화 시작. 개그맨 배동성의 오프닝 멘트가 있을 후 KBS 신인 개그맨들이 꾸미는 몇몇 고정코너가 진행된다. ‘웰컴 투 더 호텔 캘리포니아’를 ‘어서옵쇼 호텔 캘리포니아’로 번역한 오승환·최현진의 ‘음악콩트’가 시작되자 관객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온다. ‘음악콩트’는 이미 <한반도 유머 총집합>의 인기코너로 자리잡았다. 다음으로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중인 각종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를 초청해 공연하는 ‘초대 연극 코너’가 진행된다. 이번 주 초청작은 ‘공연 코미디 시장’의 ‘스타워즈 시리즈’다.

아마추어 개그맨들의 참신한 웃음

몇몇 코너가 끝나고 드디어 <한반도 유머 총집합>의 간판 코너인 ‘뽀스테이지’가 시작된다. ‘뽀스테이지’는 개그맨이 되고 싶은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 아까부터 공연장 구석 구석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연습에 전념하던 젊은이들이 바로 주인공들이다. 오늘 선발된 10팀은 지난 주 열린 오디션에서 선발됐다. 매주 금요일 5시 KBS홀에서 열리는 오디션에는 보통 20~30팀 정도의 개그맨 지망생들이 참가한다. 오디션을 통과해 ‘뽀스테이지’에서 3회 이상 우수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전문 개그맨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그래서 요즘 개그맨 지망생 중에는 ‘뽀스테이지’ 출연을 목표로 연습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마추어인 탓에 아무래도 서툴기 마련. 성대모사, 비트박스, 춤과 노래 등 자신이 가진 재능을 모두 펼쳐보이지만 긴장한 탓

에 실수도 일어난다. 지난주 우수상 수상자로 다시 무대에 선 조상진 씨는 ‘뽀선 개그’를 위해 뽀선인형을 만들다가 연속으로 뽀선을 터뜨리고 말았다. 10개가 넘는 뽀선을 끊임없이 불고 있는 그에게 관객들은 “와~”하는 함성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가끔 대사를 놓쳐 당황하는 출연자들이 등장하면 관객석에서도 “어머, 어떡해” 하는 안타까운 속삭임이 들려온다. 아마추어 개그맨들에게는 실전연습과 함께 담력과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무대인 셈이다. 첫주부터 출연, 우수상 한 번, 장려상 두 번을 타 연속 4주째 무대에 서고 있다는 서울예전 졸업생 김지환 씨는 “할수록 익숙해지고 연기력도 느는 것 같다”며 “우리 팀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도 섭외가 들어왔다”며 자랑했다.

연출되지 않은 진짜웃음 총집합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다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대학로로 흠뻑 젖었다. 하루 꼬박 녹화를 준비하며 녹초가 된 김웅래 PD는 그래도 무사히 한 회 공연을 마친 것이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소극장 녹화는 스튜디오 녹화보다 3배 이상의 시간과 일손이 필요하죠.”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은 제작진을 더욱 분발하게 하고 있다.

“스튜디오 녹화 프로그램과는 달리 연출된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프로의 장점을 앞으로도 계속 살려나갈 생각입니다.”

글_이영희(문화일보 기자), 사진_신병호

KBS KOREA 편성표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3		추억의 한국 영화									3	
4	38 40	한국의 보물								38 40	4	
5		앙코르 위성스페셜									5	
6		KBS BEST①							KBS바둑왕전②		6	
7		디스커버리 걸작선③	시사다큐60②	디스커버리 걸작선①	KBS장기왕전②					30	7	
8		인사이드 에디션 / 월드뉴스 / 디지털 정보방송 ①					영상실록 한국 월드뉴스 디지털 정보방송	KBS장기왕전①			8	
9		KBS KOREA포럼 (월1회)	위성스페셜								9	
10	25 55	도전 나도 VJ①	애니멘터리 한국실화①	디지털 미술관①	한국의 미①	KBS KOREA 녹색 다큐멘터리①	여기는 KBS KOREA	여기는 KBS KOREA 35 디지털 미술관③	25 30	10		
11	05	KBS KOREA 문화뉴스①							도전 나도 VJ③	N세대특강 이시형이 만난 프로이트③		
12		KBS KOREA choice ②							1040 터놓고 말해요②		12	
13		이것이 인생이다 한민족 리포트	VJ 특공대 현장르포 제3지대	가요@빅뱅 정미정의 시간속향기	TV 책을 말하다 국악 한마당	역사스페셜 조선 왕조 실록	개그 콘서트 쇼 파워 비디오	서바이벌 역사퀴즈③		13		
14		시간여행 역사속으로①	이벤트인 코리아①	서바이벌 역사퀴즈①	한반도 유머 총집합①	KBS월드넷① live	클래식 오디세이①	KBS월드넷③		14		
15		리얼토크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①			인물탐구 조영남이 만난 사람①	N세대특강① 이시형이 만난 프로이트		다시 보는 한국사	시간여행 역사속으로③	15		
16		디스커버리 걸작선④	시사다큐60③	디스커버리 걸작선②	인사이드에디션 주간종합①	인간극장 종합				16		
17	50	인사이드 에디션② / 월드뉴스						30	월드뉴스		17	
18		KBS KOREA 문화뉴스②									18	
18		드라마 초대석【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18	
19		KBS BEST②							한반도 유머총집합③		19	
20		KBS KOREA Choice ①							인물탐구 조영남이 만난 사람③		20	
21		Korea now VJ 특공대 현장르포제3지대 피플 세상속으로	Music 가요@빅뱅 정미정의 시간속향기	Culture TV 책을 말하다 국악 한마당	History 역사 스페셜 조선 왕조 실록	Smile 개그 콘서트 쇼 파워 비디오	People 이것이 인생이다 한민족 리포트	세상의 모든 차트②		21		
22			KBS KOREA 녹색 다큐멘터리②	디지털미술관②	한반도 유머 총집합②	1040 터놓고 말해요① 〈LIVE〉	클래식 오디세이②	이벤트인 코리아③		22		
23	05	KBS KOREA 문화뉴스③					TV동화 행복한세상		KBS 바둑왕전①		23	
24	05	시간여행 역사속으로②	이벤트 인 코리아 ②	서바이벌 역사퀴즈②	클래식 오디세이③	KBS 월드넷②	세상의 모든차트①			30		
24	05	리얼토크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②			인물탐구 조영남이 만난 사람②	N세대특강② 이시형이 만난 프로이트		다시 보는 한국사	1040 터놓고 말해요③		30	
1	05	역사 드라마②【태조왕건】									30	
2	30 50	월드뉴스③ 인사이드에디션⑤ 여기는 KBS KOREA②						시사다큐60①		인사이드에디션 주간종합②		2

해외에서 우리 소식을

생생하게 보고 듣는다



지난 8월 초 나는 회사 일로 겨울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뉴질랜드로 갔다. 나는 전망 좋은 어느 호텔 방에 앉아 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 업무로 만나야 할 사람과의 약속시간은 약 2시간 후, 이국적 풍경에 설레는 팔자 좋은 여행객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모처럼만의 '해외여행'을 즐기는 여유를 부러볼 만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때 나는 그럴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시내구경은커녕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을 정도였고 창 밖의 아름다운 풍경마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파김치가 된 여행객

지난밤 휴가철 승객으로 가득 찬 비행기의 좁은 좌석에 10시간 넘게 꼼짝없이 앉아 자고 깨기를 반복하느라 몸은 이미 파김치가 되었고, 직업과 직장을 묻는 공항 검색요원에게 한국방송 KBS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결국 그는 내 집을 살살이 뒤졌고, 급기야 정성스레 포장한 기념품의 예쁜 포장지가 나의 자존심과 함께 사정없이 뜯겨져 나갔다. 찻잔만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와 만난 택시운전사는 내가 찾아가야 하는 호텔의 위치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고, 운전석과 승객석의 위치가 바뀐 택시가 좌우가 뒤바뀐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마다 건너편에서 오는 차들과 충돌할 것 같은 착각에 움찔움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는 현지인의 호의를 거절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호텔 프론트에서는 내 여권의 영문 이름인 YI, M.S.가 예약 명단에 적혀 있는 LEE, M.S.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는 독특한 억양을 쓰는 뉴질랜드 종업원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전전공공하는 통에 시킨 음식이 나올 때쯤에 나는 벌써 허기로 지쳐 있었다.

한국에서는 너무 쉽고 간단한 일상의 일들이 이렇게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로 둔갑하더니... 나는 마치 어머니를 잃고 도시에 버려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버렸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요, 우리말로 마음껏 떠들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함이 아니라 평화"라며 동료들에게 너스레를 떨던 나의 당당함은 간 곳이 없고 그저 지치고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낯선 호텔 방 창가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반가운 한국어

그리고 그때 나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다. 호텔 TV에서는 SKY TV, BBC, NHK, CCTV 등 세계 각국 말로 방송되는 여러 개의 채널이 나오고 있었다. '세계화는 세계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채널을 서핑하던중 'K-TV' 라는 메뉴가 떴다.

K-TV? 유료TV였다. 그러나 하룻밤 시청료 몇 천 원이 혹시나 하는 나의 궁금증을 막지는 못했다. OK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충북지역에 내린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관계 당국은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

KBS 뉴스 속보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 내용에는 아랑곳없이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정말로 반가웠다. 한국어가 반가웠고, 뉴스를 리포트하고 있는 앵커도 반가웠고, (죄송한 말이지만) 화면에 나오는 물에 잠긴 마을도 반가웠다. 눈가에 절끔 눈물이 맺힐 정도로 반가웠다. 아 이런 거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거...

나는 만리타향 낯선 곳에서 KBS를 만난 것이었다. 내 고향을 만나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내 일상을 만난 것이었다. 나는 뿔어져라 TV를 보기 시작했다. TV를 본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다니... 얼마 동안은 그렇게 TV를 보다보니 그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속 TV를 보았다.

해외동포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사실 이곳에 오기 얼마 전 두바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교민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후에 백과사전을 뒤져 두바이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7개 연방국 중 하나인 두바이의 수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 교민은 감동에 찬 목소리로 그곳에서 KBS를 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단조로운 아랍권의 생활에 KBS 방송이 커다란 즐거움과 위안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야 그 교민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만리타향에 왔지만 내 고향과 끈이 닿아 있는 느낌...

긴장이 풀리니 슬슬 잠이 몰려왔고 뉴스 속보가 끝날 때쯤 잠시 낮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잠결에 어렴풋이 <KBS 뉴스 9> 여자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은 한국방송 KBS가 제공하는 <TV Korea> 방송시간입니다. <TV Korea>는 교양, 오락, 드라마 등 KBS의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나는 마치 길을 잃고 낯선 곳을 헤매다 다시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글_이명신(KBS KOREA PD)



KBS 김인규 뉴미디어 본부장(사진 오른쪽)이 무토 요시노리 KNTV 대표와 업무제휴 약정서 조인해 일본에서도 스카이퍼펙TV를 통해 KBS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 TV Korea란.

KBS 1TV, KBS 2TV, KBS KOREA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채택, 새롭게 편성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KBS 국제위성방송 채널의 명칭.

▶ TV Korea를 볼 수 있는 곳은.

미국-TV Korea는 2001년 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미국 지역의 TV Korea는 KBS의 미국 자회사인 KTE에서 편성하여 위성방송사인 iSkycom사를 통해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일본-2002년 8월 초에 시작되어 하루 약 10시간 정도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시간에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약 2만 여 가구의 교민과 일본인들이 시청하고 있으며 SkyperfecTV 331채널인 KNTV를 통해 볼 수 있다.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 2001년 9월부터 방송이 시작되어 현재는 하루에 약 10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나 2002년 9월부터 하루에 약 20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프랑스 위성방송 글로벌캐스트의 채널선을 통해 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 - 괌, 사이판, 뉴질랜드에서는 2002년 8월부터 TV Korea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시각에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02년 하반기에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2003년 방송실시를 목표로 현재 준비중이다.

▶ 향후 TV Korea는.

중국,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방송서비스를 넓히기 위해 준비중이며,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KBS 프로그램 및 KBS 뉴스의 실시간 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하는 재 미 | 우리도 한뫼 뉴스수화통역사 조성현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 오후 다섯시 뉴스 시각. 앵커가 아닌데도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뉴스수화통역사 조성현 씨' 이름 그대로 뉴스를 수화로 바꿔 전달하는 역할인데 청각장애인에게 손끝으로 뉴스를 옮겨 눈으로 듣게 하는 통역을 맡고 있다.

혹시 연예인 아니세요?
 '뉴스수화통역사'란 낯선 명칭을 갖고 있지만 외모만큼은 절대 낮설지 않다. 손바닥만한 뉴스화면 한 칸의 주인으로 방송한 지 올해로 9년째이기 때문.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 오후 다섯시엔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니 출연시간만 따져도 웬만한 장수프로그램의 주인공쯤 된다.
 그리고 보니 은근히 알아보는 사람도 많다. "한번에 알아보기엔 힘들고 서너 번 얼굴을 힐끗거리다 문쭉, 혹시 연예인 아니세요? TV에 나오시는 분은 맞죠?" 처음엔 청각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 주변 친구들 중심으로 알아보던 것이 이젠 사인을 요구할 정도로 고정적인 팬들도 생겼다. 제일 무서운 것은 수화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예리한 학생들의 모니터다. "처음엔 누가 볼까 싶었는데 요즘엔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로 인터넷으로 즉시즉시 꼬집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화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관심도 많아졌다는 표시겠지요."
 군대를 제대하고 여자친구가 수화하는 모습이 예뻐서 또 신기해서 우연히 배우게 됐다는 수화. 그렇게 배운 수화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본업이 되어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이 바뀌고 뉴스에 수화통역이 의무화되면서 복지관에서 파견돼 시작된 것으로 방송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첫방송 땀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땀이 비오듯이 똑똑 떨어지고 답이 걸릴 정도로 일반 농아들과 나누는 수화처럼 자연로 노하우도 생겼다. "뉴스는 주어진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일반 농아들과 나누는 수화처럼 자연스럽게 지어집니다. 빨리빨리 다음 뉴스를 앵커의 속도와 맞춰서 진행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말을 빨리 하면 혀가 꼬이는 것처럼 손도 꼬인다. 9년차지만 긴장하는 것은 똑같아서 어깨에 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손가락 관절염이란 특수 직업병도 생겼다고.



장애인들의 천국 한국이 되는 그날까지

조성현 씨는 뉴스수화통역사이기 전에 사회복지사란 직함을 갖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다 보니 늘 관심사도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 많다. "자원봉사란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우면 됩니다." 택시기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먼저 다가가 태워주면 되고,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장애인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뉴스수화통역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조성현 씨의 소망은 모두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뉴스프로그램의 간판인 <9시 뉴스>에도 꼭 수화통역이 들어가는 것과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이 100% 민간복지가 되는 것. <9시 뉴스>는 시간 안배가 길다 보니 속도도 느린 편이라 수화도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접할 정보도 많단다.
 조성현 씨, 그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고 말이 전혀 없는 세상일지라도 손짓으로 나누는 사랑은 어느새 말을 걸고 정보를 전달하며 전파를 타고 세상을 통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으로 하는 말, 손으로 전하는 뉴스”

글_윤선영(자유기고가), 사진_이민규



엄지손가락만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움켜쥔 상태에서 손을 다른쪽 손바닥과 평행하게 좌우로 움직이면 '희망'이라는 뜻의 수화가 된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손짓. 조성현 씨는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제일 큰 힘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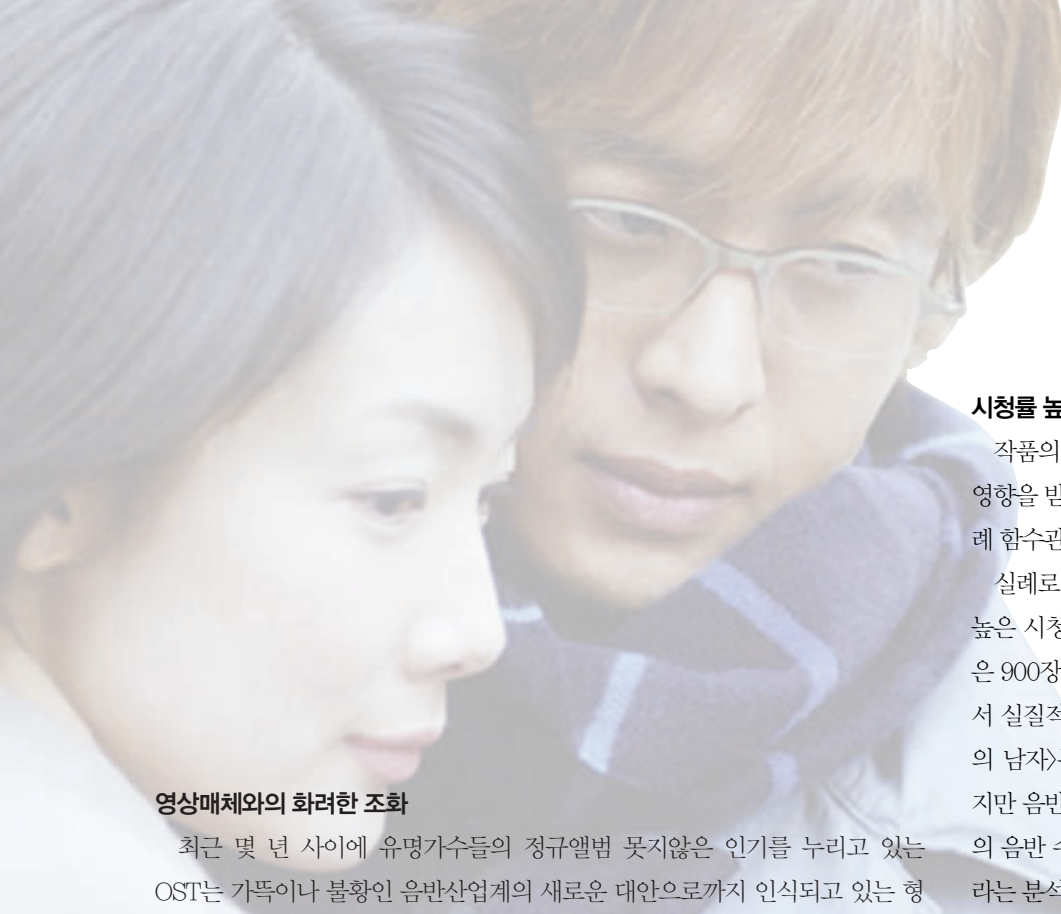
Original Sound Track

방송과 음반사업에서 OST가 사랑받는 이유

함께하는 문화읽기
재미 OST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신(神)이 내린 최고의 선물은 음악이라고 했다. 그 음악이 영화나 TV 드라마의 영상과 결합될 때 최대의 효과를 지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화면이 주는 화려한 영상이 미처 챙기지 못한 미세한 부분을 채워주는 음악이야말로 인간의 감정표현을 극대화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OST(Original Sound Track)는 흔히 영화나 드라마상에 깔려 있는 노래나 배경음악(BGM) 등 음원의 총칭을 일컫는다. 영상의 제작시기와 함께 시작된 OST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에 발맞춰 생사고락을 함께해왔다.



영상매체와의 화려한 조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명가수들의 정규앨범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OST는 가뜰이나 불황인 음반산업계의 새로운 대안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이상 영화나 드라마의 부속물쯤으로 여겨지길 거부하며 당당하게 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는 얘기가.

그러나 OST가 자생적인 힘을 등에 업고 독립된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니다. OST가 음반시장에서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영상매체의 철저한 ‘후광효과’가 있었다.

한석규·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접속>은 그 인기의 여파로 OST가 70만 장에 이르는 판매량을 보였고 <쉬리>, <봄날은 간다> 등의 OST 역시 최고의 히트음반으로 각광 받아 영화만큼 단단한 인기와 판매를 보장받았다.

음반시장의 블루칩으로 주가상승

지난 96년 시청률 50%를 넘기며 안방을 달궜던 KBS 2TV 주말드라마 <첫사랑>은 매회 감동의 물결로 넘쳤다. 탤런트 최수종과 이승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은 시청자들을 내내 가슴 졸이게 했다. 만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이들이 갖은 산고 끝에 눈물 어린 재회를 맞이하는 순간 드라마는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흐르는 타이틀곡 ‘Forever’는 보는 이의 감정을 최고조로 올리며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비록 OST는 아니더라도 스타라토바리우스가 부른 ‘Forever’가 담긴 앨범은 전세계 판매량의 75% 정도가 한국에서 소화될 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또 이 드라마에서 김조한이 부른 ‘존재의 이유’ 앨범(OST는 아님) 역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뜻밖의 행운을 차지하기도 했다. 모두 드라마가 일궈낸 결과였다.

이처럼 OST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드라마 OST는 최근 영화 OST 음반시장의 평균 5배 이상 판매량을 보이는 등 음반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청률 높다고 함께 뜨지는 않는다

작품의 흥행성에 따라 OST 음반 판매량도 덩달아 영향을 받는 ‘동반 마케팅’ 전략은 그러나 반드시 정비례 함수관계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KBS 1TV 일일드라마 <새엄마>는 30%대의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OST 음반 7월 현재 판매량은 900장에 못 미쳤다. 주시청자가 40, 50대 이상이어서 실질적인 구매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MBC <위기의 남자>는 같은 방송의 <로망스>보다 시청률은 낮았지만 음반 판매량은 3배 가량 앞질렀다. <위기의 남자>의 음반 수록곡들이 음악적으로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드라마 OST가 10, 20대층이 많이 보는 평일 미니시리즈나 온가족이 시청하는 주말연속극에서 성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음악적으로 내용이 좋고 사운드가 돋보이는 OST가 ‘동반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음악성과 상업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질 좋은 음반을 만들려는 시도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실패부담 줄이는 안전장치

KBS <겨울연가>의 류, MBC <위기의 남자>의 JK 김동욱, SBS <순수의 시대>의 그룹 M.N.J 등 가창력 있는 신인들과 김형석, 이정섭 등 대중음악 히트 작곡가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현상은 OST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영화쪽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쉽게 감지된다. 영화 <라이터를 켜라>에서는 유희열, 박정현, 윤종신, 롤러코스터 등 작사·작곡·편곡에 능한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음반 참여에 줄을 이었고 영화 <챔피언>에서는 그룹 god가 주제곡을 불렀다.

음반업계는 예전처럼 일반 레이블과 OST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 레이블에서 유명한 기성가수들과 전문 작곡가들을 OST 음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타이업(Tie-up)’ 전략을 구사해 음반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OST 음반에 대한 이같은

변화는 일반 레이블 음반시장의 불황과 궤를 같이한다. 과거 100만 장을 쉽게 팔아치웠던 유명가수들이 지금은 20만 장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실력 있는 신인가수들 역시 무작정 앨범을 냈다 실패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OST라는 안전장치를 이용한다. 특히 드라마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 제작비와 맞먹는 마케팅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고 뮤직비디오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으니 가수로서 최대의 홍보효과와 비용절감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OST 제작비는 지난 94년 1000만 원 수준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 10배에 해당하는 1억에 달할 정도로 상승했다. 이 정도면 톱 가수들의 앨범 제작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 일반 레이블에 담긴 수록곡들 중 90% 이상이 노래(Song)인 것과 OST의 70~80%가 배경음악(BMG)인 점을 비교해 보면 제작비가 쓸데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인식도 만만치 않다.

‘듣는’ 드라마 유행 만들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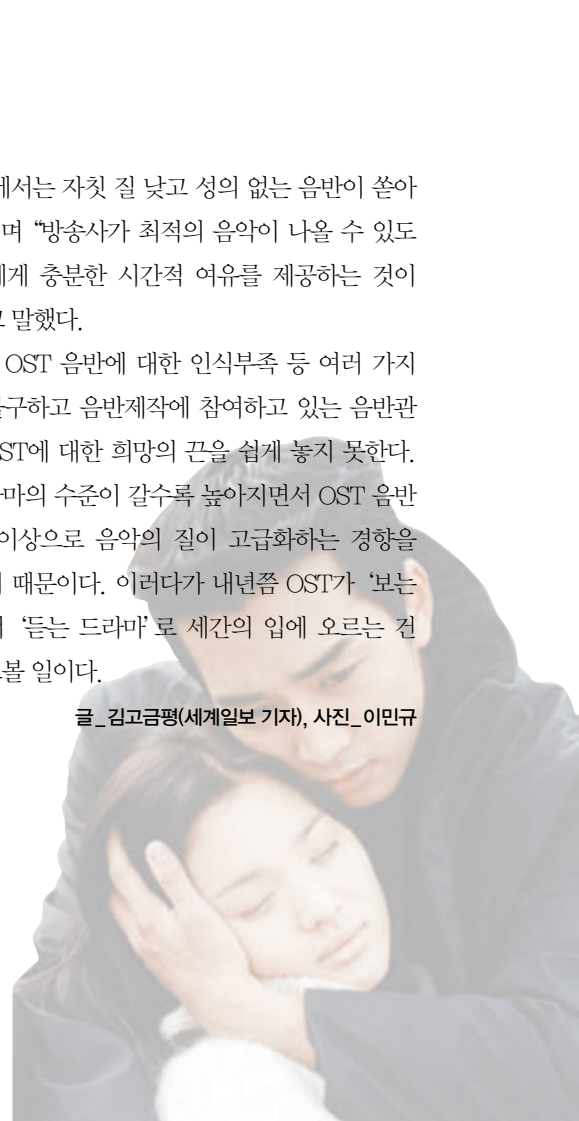
음악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OST 음반은 일반 앨범과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드라마 장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는 배경음악을 결코 값싸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작곡가 이정섭 씨는 “그러나 하루 만에 배경음악 15, 20곡을 만들 수밖에 없

는 현 상황에서는 자칫 질 낮고 성의 없는 음반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방송사가 최적의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작곡가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사의 OST 음반에 대한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음반관계자들은 OST에 대한 희망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OST 음반 역시 기대 이상으로 음악의 질이 고급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다가 내년쯤 OST가 ‘보는 드라마’에서 ‘듣는 드라마’로 세간의 입에 오르는 건 아닌지 두고볼 일이다.

글_김고금평(세계일보 기자), 사진_이민규



빅히트 드라마 OST 이모저모

시청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최초의 OST음반의 타이틀곡은 MBC <사랑이 뭐길래>에서 김국환이 부른 ‘타타타’. 이후 OST 음반은 <질투>, <여명의 눈동자>, <사랑을 그대 품안에> 등으로 위력을 과시했고 KBS <명성황후>,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퓨전음악을 각각 선보였다. SBS도 <명랑소녀 성공기>, <순수의 시대>, <수호천사> 등의 음반으로 드라마를 빛나게 했다.

어떤 드라마 OST있나

KBS <가을동화>는 지난해 50여 만 장의 판매기록을 세우며 음반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가을동화>의 신화를 이어나간 <겨울연가>는 각종 음악순위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거침없는 사랑>은 드라마보다 타이틀곡이 더 유명할 정도로 음반이 성공한 케이스. MBC <네 멋대로 해라>, <로망스>, <위기의 남자>, <여우와 송사탕> 등의 음반들도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네 멋대로 해라>는 음악감독 최성욱 씨의 프로듀싱이 빛어낸 탄탄한 기획과 구성으로 주목을 받았고 <태양인 이제마>는 국악가요라는 새로운 실험음악, <상도>는 클래식과 국악이 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융합한

드라마 OST는 신인가수 등용문?

KBS <가을동화>의 정일영, <겨울연가>의 류, <거침없는 사랑>의 안젤로, MBC <로망스>의 한성호, <위기의 남자>의 JK 김동욱, <반달곰 내사랑>의 리치 등은 해외에서 유학했거나 국내에서 실력을 인정 받은 무명가수들이다. 이들은 독집앨범을 내기 전 OST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검증 받는다. OST에 참여한 이들 신인들은 또 목소리만 들려주고 얼굴은 가리는 ‘신비주의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 홍보를 극대화한다.

OST 관련 진기록

<겨울연가>의 OST는 대만과 홍콩 등 동남아 등에서 이미 30만 장을 넘겼다. 특히 류가 부른 <겨울연가>의 주제곡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홍콩과 대만에서 팝스타 셸린 디온을 제치고 팝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MBC <호텔리어>를 통해 데뷔한 신인가수 강철은 대만에서 10만 장을 팔며 인기를 얻은 케이스다. 이밖에 작곡가 이정섭은 KBS <명성황후>와 MBC <그 햇살이 나에게> OST 음반제작에 동시에 참가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왕성한 활동을 과시했고 가수 김건모는 SBS <장>의 OST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